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손오공, 정말 있었나

투전승불(鬪戰勝佛)

청동제 손오공 상(골동품, 지철 스님 소장)

〈서유기〉 주인공으로 삼장법사 도왔던 손오공과 그 아우묘 복건성서 발견돼

조선시대 〈노걸대(老乞大)〉와 더불어 대표적인 외국어(중국어) 학습서로 손꼽혔던 〈박통사(朴通事)〉에는 중국의 사대기서(四大奇書) 가운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가장 오래된 서유기인 〈서유기평화(西流記平話, 원나라 말기) 刊〉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이 소장한 서유기 자료보다 훨씬 더 앞선 이 책에는 천궁(天宮)을 쑥대밭으로 만든 화과산(花果山)의 돌원숭이 손오공(孫悟空)과 더불어 흑풍산 흑풍괴(黑風怪)와 화염산(火焰山)의 홍해아(紅孩兒)의 기록이 나온다.

이 세 인물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머리에 씌운 금테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오행산(五行山) 아래의 돌 속에 500년을 가뒀어도 말을 듣지 않던 손오공을 삼장법사(三藏法師)가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관세음보살이 하사한 머리를 옥죄는 신비한 머리띠인 긴고아(緊箍兒)와 이를 작동시키는 주문인 긴고주(緊箍呪)이다.

삼장법사가 이 긴고주를 외우면, 이 금속제 머리띠가 머리를 죄어들어가서 눈이 빠질 듯, 머리는 깨질 듯하다고 한다. 이 머리띠를 만든 이가 석가모니부처님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에게 세 개의 머리띠와 띠를 작동하는 각각의 주문을 전했다고 한다.

이 머리띠들은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후에 투전승불이 된 손오공에게 하나, 엄청난 바람으로 삼장일행을 괴롭혔던 흑풍산 흑풍괴에게는 금고아(禁箍兒)라는 띠 하나, 뜨거운 불이 덮인 산으로 갈길을 막은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인 화염산의 홍해아에겐 금고아(金箍兒)라는 띠 하나 등, 전부 세 개 이다.

그 이후, 흑풍괴는 관세음보살이 주석하는 보타락가(낙가산)을 지키는 수산대신(守山大神)이 되고, 홍해아는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善財童子)를 만들었다고 한다. 필자가 낙산사에서 불사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차량을 홍예문 밖에 세워놓은 적이 있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차량전면 유리가 모래바람에 곰보가 되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마 산신인 흑풍괴의 소작임에 틀림없다.

화염산은 중국 신장자치구(新疆自治區) 투루판(吐魯番)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인데, 위구르말로는 붉은 산이라 부르며, 산의 길이가 98km, 폭 9km의 규모이다. 주봉(主峰)의 해발높이는 831.7m이다. 산은 거의 갈색과 짙은 붉은 색인데, 온도가 높아 여름엔 섭씨 47도까지 오르고 햇빛이 직접 내리쪼이는 곳은 80도까지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온도계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화염산을 다스리던 홍해아는 지금은 고려불화 속의 선재동자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다. 40여 점 정도 남아있는 수월관음도의 상당수에는 머리에 리본장식을 하거나 뭔가 띠를 매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아 있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큰 작품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는 머리를 맨 리본이 선명한 선재동자가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끓는 번뇌를 상징하는 화염산을 떠나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선재동자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식는다.

대자대비민중생(大慈大悲愍衆生, 큰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소서)으로 시작하는 백팔대참회문에는 108번의 큰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엔 투전승불과 전단공덕불(傳檀功德佛)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예를 올리어 참회를 빌게 되어있다. 계를 파한 중생들이 참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은 고려대장경에 속해다. 이 역시 투전승불이 그 안에 증명하고 있다.

최근 서유기의 주요인물인 손오공(제천대성, 齊天大聖)과 그의 아우(통천대성, 通天大聖)의 합장묘가 발견되었는데, 원말명초에 만들어진 형제의 묘는 복건성(福建省) 순창(順昌)현 서북부의 보산(寶山) 주봉에서 발견됐다.

순창현의 박물관장인 왕이민(王益民)은 위 시기 몽고족 양경현(楊景賢)이 쓴 서유기에서 통천대성을 찾았다 한다. 왕관장은 "손오공 형제 합장묘는 서유기 등장인물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실물자료"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고요

철새들이 하나 둘
달 속으로 모여들며 몸 녹이는 저 고요.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환성지안 선사의 '운문사의 약야계(雲門寺若耶溪)'

멈춤을 어찌 견디랴

自愛冷冷日夜流 (자애냉랭일야류)	내 밤낮으로 흐르는 차가움 사랑하여
平生偏占小溪頭 (평생편점소계두)	평생을 자그만 시냇가 한쪽 차지했네.
渠心在大那堪住 (거심재대나감주)	그 마음 큰데 있거니 멈춤을 어찌 견디랴.
不到滄溟政不休 (부도창명정불휴)	넓은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결코 쉬지 않으리.

조선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 스님은 15세에 출가한 후 참으로 많은 곳을 편력하며 선을 닦고 교를 강의했다. 이 시는 스님이 청도의 운문사에 잠시 머물 때 지은 시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손꼽히는 서시(西施)의 고사가 얽혀 있는 약야계, 지금 운문사를 흐르는 강 이름이기도 하며 임란 때 잃어버렸던,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호(靑銅壺)를 찾은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운문사를 에둘러 약야계의 푸르디푸른 냇물이 흐른다. 이 시내는 언제나 그랬듯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다. 냉랭한 물소리는 부끄러운 설익은 염불연습소리를 감추어주고, 햇볕에 적당히 따스해진 시냇물은 파란 풀잎차를 우려먹을 수 있게 해준다. 가을 단풍의 붉음이 떨어진 시냇가는 법담을 나누거나 대중생활에서의 애환을 녹여 주는 동주도반의 쉼터가 되어준다. 하늘높이 걸린 찬 달까지도 약야계에 내려 앉아 다리 위로 호젓이 걷는 조촐한 수행자와 함께 짝이 되어 걸어 준다. 냉랭(冷冷)한 물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운문사를 흐르는 약야계, 그리고 시냇가 한 자락을 얻어 사는 스님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본다. 걸림 없는 법해에 이르기 위함이다. 지안 스님은 끊임없이 흐르고 흐르는 냇물에 탐·진·치나 순간순간 마주치는 법희에 만족해 주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자신의 수행 정진을 기탁해 보여주었다.

이 시내를 많이도 사랑해 그 오랜 옛날의 지안 스님을 비롯해 지금껏 한쪽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스님들은 변함없이 구도 열을 불태우고 있다. 늘 새롭게 흐르는 저 약야계처럼.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TIP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TIP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 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